“일제 만행 끝까지 기억하자”

군산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 추념식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군산 동국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가 열렸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념사업회(공동대표 이승우)와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8월 14일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을 맞아 추념식과 추모공연을 열었다.〈사진〉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윤동욱 군산부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을 비롯한 각급기관장들과 군산여성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조에 대한 묵념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경과보고, 헌공다례, 헌화, 추념사, 헌시 낭독, 추모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우 이사장은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그동안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기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난 역사를 통해 미래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동국사 소녀상은 다른 곳의 소녀상과 달리 일제의 만행을 참회하는 일본 조동종의 참사비를 배경으로 서 있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의 성원으로 세워지게 된 만큼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돌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소원 청년회, 인재불사 후원금 전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생에 300만원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청년회는 8월 1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 불교학부 학생 3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미소원 청년회는 2017년 11월 11일에 창립돼 활발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창립 후 조손가정 장애 아동 후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손가정 청소년 후원 등을 펼쳐왔다.



장유정 이사장은 “불교 미래를 위해 청년 후원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불교관련 학과 졸업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장학금도 계속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더위 식히는 산사 재즈음악회

통도사, 8월 25일 재즈가수 웅산 초청공연

영축총림 통도사가 시원한 산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재즈 공연을 마련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5일 오후 1시 삼성반월교 옆 특설무대에서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의 특별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불자 가수로 알려진 웅산은 재즈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 라이터,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제적 활동을 통해 한국 대표 재즈 디바로 알려져 있다.

웅산은 23년 동안 재즈보컬리스트로 활동하며 2011년 일본 ‘재즈비평’에서 베스트 앨범상과 보컬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일본 최고 전문잡지인 ‘스윙저널’에서 한국인 최초로 골든디스크 상을 수상했다.

한편, 통도사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작은 음악회’를 주최하며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시민들을 위해 쉼터를 마련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살예방운동, 불교가 구심점”

부산불교교육대학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나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2016년 행정안전부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부산시는 인구 1만 명당 2,66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전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지역으로 발표됐다.

소식을 접한 부산 스님들과 불자들은 생명 사랑을 강조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매달 거리 행진을 펼치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자살자와 교통사고 희생자 위령대재 및 자살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대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주축으로 부산불자들이 생명존중을 강조하며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는 8월 25일 오후 3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분수광장에서 ‘제3회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한다. 캠페인은 1부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를 위한 위령대재가 열리며, 2부 법요식과 3부 거리 캠페인 순으로 진행된다.

위령대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이수자 스님들이 전통방식으로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 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특히 자살영가를 위로하는 위령대재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자살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학장 범혜 스님은 “자살 예방센터를 방문해 유가족을 만났는데 폐쇄적이며 밝히길 꺼려하는 모습을 보며 아픈 마음이 깊이 전달됐다”며 “사회 편견의 눈빛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인데 제대로 재를 올리지 못한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기도 동참자를 위한 위패를 만들어 재를 올릴 예정이며 현재 접수 중이다. 위령재는 무

생명존중 위한 합동 캠페인
자살자 유가족 위한 위령재
8월 25일 서면 일대서 봉행
생명사람지킴이 지속 배출해

료이며 누구나 동참가능하다.

캠페인은 동참자들이 생명 존중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부산 중심가인 서면 일대를 행진한다. 행진은 서면영광도서 앞 분수광장을 출발해 서면지하도, 서면대로변, 교보생명지하도, 쥬디스 태화를 돌아 전포동카페거리, 롯데백화점,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회향한다. 아울러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기획한 전단지 7000여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전단지에는 ‘자살예견 신호와 대처방법’ 및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10선’이 담겼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기존 전단지에 구체적인 자살 예방법을 추가해 담았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수칙을 소개해 두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거리 행진 모습.

범혜 스님은 “한 번 보면 정리하고 머릿속에 익힐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두었다”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생명 지킴이로 성장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7월 19일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도 이수 했다.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시행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를 통해 생명사랑 지킴이로 교육, 성장할 것을 다짐한바 있다. 교육은 화엄승가회 스님 21명을 비롯해 불자 등 총 118명이 보건복지부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뿐 아니라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나눔 승가 단체인 화엄승가회 스님 및 소속 24개 사찰,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등 부산 불교계와 부산진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의경어머니회 지역단체 등 5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범혜 스님은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살과 교통사고 사건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식 고취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저희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살률이 높은 것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통 사고율이 높은 것은 양보와 배려의 습관이 부족한 탓이기에 반드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말했다.

1 · 3세대 잇는 문화축제 대구서 열린다

마음이아름다운재단, 8월 24~25일 망우공원 일원서

K-Pop과 국악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1 · 3세대를 잇는 축제가 대구에서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마음이아름다운재단(대표 혜강)은 8월 24~25일 대구 망우공원 영남제일관 일원에서 ‘제1회 빅피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빅피플(Big people)은 대인(大人)의 의미로 사람이 곧 부처라는 인불사상에서 따왔다. 인간성 회복 · 사람이 보배 · 수신제가평천하라는 주제 아래 전통문화와 한류의 중심인 K-Pop, 사찰음식 등 불교 내외의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다.

첫날은 오전 11시 효(孝) 백일장으로 행사의 문을 연다. 대구경북 초 · 중 · 고교생과 동등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뉜다. 부문 통합 대상과 금상을 비롯해 각 부문별 우수상을 선정,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자연건강음식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경연대회는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사찰음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국회의원상과 구청장상 등 시상도 이뤄진다. 메인행사인 개막식은 오후 7시 별도 무대에서 선보인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K-Pop공연과 국악공연이 대구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둘째 날에는 행사의 백미인 K-Pop 경연과 국악경연이 펼쳐진다. K-Pop 경연은 동영상 예선을 거쳐 15팀을 선발하며, 초 · 중 · 고교생이 참여 가능하다. K-Pop을 소재로 커버 · 창장댄스를 선보여야 한다. 대상 1팀 상금 70만원을 비롯해 각각 수상자에게 상금이 주어진다.

국악경연은 세대소통부(종합부)와 학생부로 나눠 경연한다. 5인 이상 20인 내외 단체로서 예선을 거쳐 현장 무대에 오른다. 세대소통부는 3세대로 구성된 팀,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 또는 동호인 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국악경 연 역시 수상자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축제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망우공원 효 걷기 스탬프투어’를 운영하며, 바자회, K-뷰티체험관, 다도교육체험관, 각종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이에 맞춰 24일 오후 4시 동촌유원지에서는 수성구사암연합회 주최로 제1회 금호강 무차수륙방생대재가 봉행된다. 무엇보다 유치원생들의 방생체험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혜강 스님은 “우리사회에 효(孝)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진부한 것처럼 여겨진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행사로 효의 가치를 부각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비종교인들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색을 최소화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053)568-7004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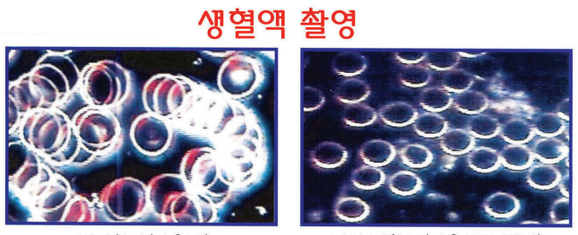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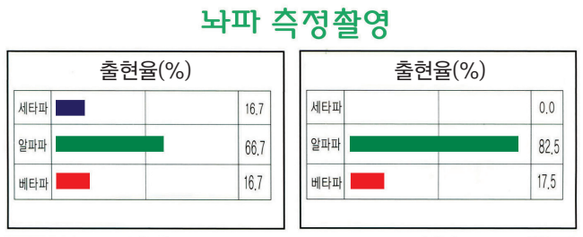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